

2019년 6월 19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위험자산 선호심리 높아지며 상승 시진핑-트럼프 전화 통화 후 협상에 대해 긍정적 발언

미 증시 상승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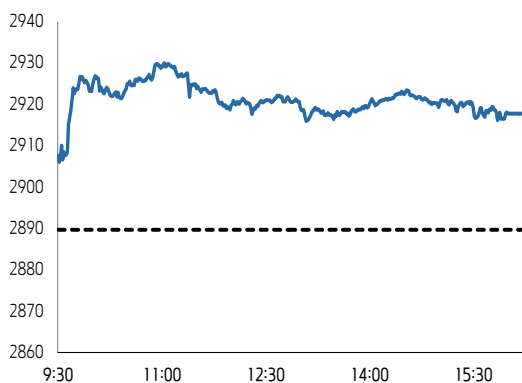
미 증시는 G20 정상회의에서의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가 유입되며 상승 출발. 더불어 드라기 ECB 총재의 추가 경기 부양정책 시사 언급 또한 긍정적인 요인. 특히 반도체, 산업재, 금융주 등 무역분쟁 완화 수혜업종이 상승 주도(다우 +1.35%, 나스닥 +1.39%, S&P500 +0.97%, 러셀 2000 +1.14%)

미 증시는 ①미-중 무역협상 기대 ②ECB 의 추가 경기 부양정책 시사 에 힘입어 상승. 먼저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가 높아졌음. 트럼프가 “시진핑과 긍정적인 통화를 했고, G20 회담에서 만날 것” 이라고 주장 했으며, 정상회담 전에 실무진들의 만남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 시장이 주목한 부분은 트럼프와 시진핑이 전화 통화를 통해 정상회담 개최를 발표 한 점. 그 동안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져 왔으나, 실무진까지 이어지는 확대회담 개최가 발표된 점은 투자심리 개선에 우호적. 이 소식이 알려지자 산업재는 물론 반도체 업종이 급등.

드라기 ECB 총재가 ECB 포럼에서 “물가 전망이 개선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경기 부양정책이 필요하다” 라고 발표. 특히 “정책 금리 인하나 그 외의 완화 정책 들도 가능하며, 자산 매입프로그램 여건도 충분하다” 라며 관련 정책들을 시사. 더 나아가 몇 주안에 관련 사안에 대해 점검을 해 어떤 정책을 내놓을 지 점검할 것이라고 주장. 그렇기 때문에 7월 25일 있을 ECB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

한편,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 알려진 이후 유로화는 달러 대비 약세로 전환 했으며, 유럽, 미국 주식시장은 이에 힘입어 상승. 미 국채금리는 드라기 총재의 발언 영향으로 10 년물 국채금리가 한 때 2.04%를 하회하는 등 하락. 특히 ECB 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높아지자 미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 또한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 그러나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이 높아지자 10 년물 국채금리 하락폭이 축소되었으며 단기물은 상승 전환 성공. 더불어 국제유가 또한 4% 넘게 급등하는 등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짐.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등락률(%)	Close	D-1	지수	등락률(%)	Close	D-1
KOSPI	2,098.71	+0.38	홍콩항셱	27,498.77	+1.00			
KOSDAQ	714.86	-0.59	영국	7,443.04	+1.17			
DOW	26,465.54	+1.35	독일	12,331.75	+2.03			
NASDAQ	7,953.88	+1.39	프랑스	5,509.73	+2.20			
S&P 500	2,917.75	+0.97	스페인	9,240.70	+1.19			
상하이종합	2,890.16	+0.09	그리스	853.32	+0.70			
일본	20,972.71	-0.72	이탈리아	21,133.78	+2.4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반도체, 산업재, 금융, 에너지 업종 강세

마이크론(+5.74%)은 미-중 정상회담 개최 소식이 전해지자 급등 했다. 인텔(+2.69%), 퀄컴(+4.12%), 텍사스인스트루먼트(+4.05%), NVIDIA(+5.41%), 자일링스(+6.94%) 등도 급등 했다. 이에 힘입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33% 상승 했다. 한편, 애플(+2.35%)도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자 상승 했다. 퀴보(+5.56%), 스카이웍(+4.53%), 아나로그디바이스(+4.61%) 등 애플 관련주도 동반 상승 했다. 여기에 보잉(+5.37%), 캐터필라(+2.36%), 디어(+3.25%), 3M(+3.05%) 등 산업재를 비롯해 나이키(+2.67%)는 물론 GM(+1.55%)등 자동차 업종도 미-중 무역협상 기대가 높아지자 상승했다.

JP모건(+1.36%), BOA(+2.47%), 웰스파고(+1.83%) 등 금융주는 국채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했다. 비록 ECB의 경기 부양정책에 따른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가 높아졌으나,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는 향후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엑손모빌(+0.87%), EOG 리소스(+3.31%)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 급등에 힘입어 상승 했다. 반면, 듀크에너지(-0.81%) 등 유틸리티 업종과 리얼티인컴(-0.93%) 같은 리츠금융, 필립모리스(-1.13%) 등 경기 방어주는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자 하락 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2.64%	대형 가치주 ETF(IVE)	+1.12%
에너지섹터 ETF(OIH)	+2.22%	중형 가치주 ETF(IWS)	+0.87%
소매업체 ETF(XRT)	+0.55%	소형 가치주 ETF(IWN)	+1.20%
금융섹터 ETF(XLF)	+1.33%	대형 성장주 ETF(VUG)	+1.07%
기술섹터 ETF(XLK)	+1.81%	중형 성장주 ETF(IWP)	+1.21%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51%	소형 성장주 ETF(IWO)	+1.09%
인터넷업체 ETF(FDN)	+0.92%	배당주 ETF(DVY)	+0.66%
리츠업체 ETF(XLRE)	-0.29%	신흥국 고배당 ETF(DEM)	+2.19%
주택건설업체 ETF(XHB)	+0.46%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1.54%
바이오섹터 ETF(IBB)	+1.38%	미국 국채 ETF(IEF)	+0.19%
헬스케어 ETF(XLV)	+0.85%	하이일드 ETF(JNK)	+0.62%
곡물 ETF(DBA)	-0.41%	물가연동채 ETF(TIP)	+0.41%
반도체 ETF(SMH)	+4.07%	Long/short ETF(BTAL)	-1.1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57.67	+1.36%	+1.31%	-2.32%
소재	360.33	+0.77%	+0.24%	+6.92%
산업재	642.81	+1.89%	+1.92%	+2.43%
경기소비재	943.84	+0.75%	+1.89%	+3.36%
필수소비재	598.13	-0.57%	-0.60%	+1.00%
헬스케어	1,065.90	+0.82%	+1.40%	+4.34%
금융	452.20	+1.31%	-0.10%	+1.36%
IT	1,356.19	+1.72%	+0.68%	+4.55%
커뮤니케이션	163.57	+0.41%	+2.74%	+0.45%
유틸리티	304.03	-0.31%	+1.83%	+2.21%
부동산	234.07	-0.34%	+1.47%	+5.1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외국인 수급 개선 기대

MSCI 한국 지수 ETF 는 2.46% MSCI 신흥 지수 ETF 도 2.44%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827 계약)에 힘입어 2.70pt 상승한 274.3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74.1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2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 되었다. 그 동안 미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대응이 없었다. 시장에서는 정상회담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주식시장 반등을 제한 했었다. 그러나 트럼프와 시진핑이 전화 통화를 통해 확대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확정 했다. 전화 통화 후 두 정상 모두 긍정적인 전망을 언급 하는 등 협상 타결 기대가 높아진 점은 한국 증시 상승 요인이다.

한편, 드라기 ECB 총재는 유로존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적인 정책을 준비중이라고 언급한 점도 한국 증시 상승 요인이다. 여기에 달러/원 환율은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 등으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다.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는 등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져 외국인의 매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시각 오전 9 시부터 시작되는 트럼프의 대선 출정식에서의 발언도 기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앞두고 시진핑과 좋은 통화를 했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연설 내용 중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해서는 온건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 나아가 최근 북미간의 온건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 북미관련 내용 또한 우호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주택지표 개선

5 월 미국 주택 착공건수는 126 만 9 천건으로 지난달 발표치(128.1 만건) 보다는 줄었으나 예상치(123.9 만건) 보다는 증가했다. 착공허가 건수는 129.4 만건으로 지난달 발표치인 129 만건을 상회했다. 모기지금리가 낮아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상품시장 강세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했다. 여기에 ECB 가 경기 부양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최근 주요 기관의 수요 부진을 전망했으나, 그 요인이 미-중 무역분쟁 및 유로존 경기 둔화였던 점을 감안 두 요인의 개선 기대가 원유시장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달러화는 주택지표 개선 및 유로화 약세로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그 폭은 제한 되었다. 유로화가 드라기 총재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정책 시사하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그러나 향후 이 정책으로 유로존 경기 개선 기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자 유로화 약세폭이 축소 되었다. 더 나아가 미-중 무역분쟁 완화 기대도 영향을 줬다.

국채금리는 드라기 ECB 총재가 인플레이를 이유로 금리인하 등 추가적인 경기 부양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자 하락 했다.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을 자극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 우려가 완화되자 국채금리는 낙폭이 축소되었다. 특히 단기물의 경우는 상승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다.

금은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가 높아지자 상승 했다. 더불어 상품시장 강세 영향도 받았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가 높아지자 상승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5.21%, 철근도 1.83% 상승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3.90	+3.79	+1.18	Dollar Index	97.620	+0.06	+0.97
브렌트유	62.14	+1.97	-0.24	EUR/USD	1.1194	-0.21	-1.17
금	1,350.70	+0.58	+1.46	USD/JPY	108.44	-0.09	-0.07
은	14.993	+1.11	+1.72	GBP/USD	1.2556	+0.18	-1.33
알루미늄	1,781.00	+1.28	+0.17	USD/CHF	1.0001	+0.10	+0.78
전기동	5,949.00	+1.78	+1.24	AUD/USD	0.6875	+0.32	-1.25
아연	2,512.00	+1.70	+0.22	USD/CAD	1.3383	-0.22	+0.75
옥수수	463.00	-1.17	+3.58	USD/BRL	3.8609	-0.72	+0.09
밀	535.50	-1.34	+2.73	USD/CNH	6.9023	-0.41	-0.34
대두	940.25	+0.08	+6.00	USD/KRW	1185.80	-0.06	+0.46
커피	96.60	-1.68	-2.91	USD/KRW NDF1M	1174.15	-0.95	-0.33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056	-3.81	-8.70	스페인	0.390	-13.30	-18.60
한국	1.617	-0.50	-5.50	포르투갈	0.527	-10.80	-11.60
일본	-0.124	-0.10	-1.50	그리스	2.492	-21.20	-27.50
독일	-0.320	-7.60	-8.80	이탈리아	2.112	-18.40	-27.90